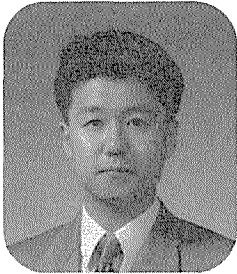


# 아이 성격은 타고나는 걸까?



손 석 한  
〈연세신경정신과·소아청소년정신과 원장〉

똑같은 환경에 여러 명의 아이를 데려다 놓으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우는 아이,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 호기심에 두리번거리는 아이, 옆의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이, 그저 즐거운 아이... 흔히 아이의 이런 반응을 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성격이란 무엇일까? 단순화시켜 말하면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반응하는 생각, 행동, 정서 등의 유형을 말한다.

## 성격은 유전자가 결정한다?

십여 년 전만 해도 성격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를 발견하면서 '성격은 유전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격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복잡한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성격이 유전된다는 가설에 반대되는 수많은 연구사례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 간 동구권의 내전과 학살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가 생겼다. 그들은 부모의 보살핌이 결여된 채 보육원에서 여러 양육자의 손을 거쳐서 양육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난폭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을 보였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자폐증과 유사한 증상까지 보였다. 그러나 다행히 많은 아동들이 서방세계로 입양되었고 새로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정신적, 물질적 풍요 속에 자라났다. 그렇게 6개월, 1년 점차 시간이 지난 후에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그들의 성격은 활발해지고 양순해졌다.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험'에 의해서 아이의 '유전적 기질'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 태내 환경이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임신 중 엄마의 스트레스, 알코올 섭취 등은 아이의 기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와 알코올 등은 태내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두뇌 발달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 결과 불안정하고 위축된 성격 혹은 공격적인 성격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태교를 하면서 안정감 있는 임신 기간을 보낸 엄마는 순한 기질의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배속의 아기는 급속한 속도로 뇌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오감의 감각기관을 발달시키는 것과 동시에 감정 발달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의 태내 환경이 유전자에 의해 형성된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이는 수정란 이후 부터 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볼 수 있다.

## 아이 성격은 만3세 이후부터 말할 수 있다



소아정신과에서는 만 3세 이전의 아이에게 '성격' 대신 '기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성격은 그 사람의 감정, 의지, 행동의 경향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인데,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은 주변의 자극에 일관되게 반응할 만한 사고, 감정, 행동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은 기질에 따라 '까다롭다', '순하다', '보통이다'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만 3세 이후가 되어야 '활발하다', '소극적이다', '공격적이다', '내성적이다' 등의 성격적 특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엄마, 아빠, 또래 친구, 주위 어른들과 접촉하면서 생긴 뇌 속 기억을 토대로 특정한 행동과 감정 유형을 만들기 시작한다. '뇌 속 회로'는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비슷한 행동과 감정 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아이의 성격을 원만하고 밝게 만들어주려면 태교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 따로 있다?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외향적인 성격의 아이가 좋다? 내성적인 성격은 고쳐야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은 낡은 생각이므로 버려야 한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고 거리낌없이 표현하는 외향적인 성향과 때로는 어떠한 문제를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는 내성적인 성향이 모두 필요하다. 성급한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특성은 '잘못된 성격'으로 속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특성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다. 외향적인 성격이 너무 지나치면 과다행동을 보이거나 거칠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고, 반대로 내성적인 성격이 너무 지나치면 친구가 거의 없거나 혼자서 위축되어 있는 아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거의 표현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 아이의 기질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단정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혹은 성격)에서 좋은 점을 발견해 키워 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부모가 바뀌면 성격도 바뀐다

아이 성격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부모를 닮는다. 하나는 타고난 성격, 즉 부모의 성격을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닮게 되는 것이다. 아이의 선천적 기질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태내 환경 역시 이미 놓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격을 바꿔 놓을 수 있다. 좋은 환경만 만들어 준다면 까다롭거나, 괴팍하거나,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아이의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좋은 환경이란 한결같은 애정을 보이면서도 옹고 그름을 일관되게 가르치는 부모의 태도다. 아이의 성격을 원만하게 바꾸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그 성격에 맞도록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서 아이가 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성격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찰흙이나 밀가루 반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원만한 성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